

건강검진의 중요성

김 상 인

인간의 욕망중에서 가장 큰것의 하나가 무병장수하는 것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杜甫는 「人生七十古來稀」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古稀에는 큰 잔치를 하고 장수를 축하하여 왔으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남자 64.9세, 여자는 71.3세(1986년)로 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는 나라가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영국의 의사 Horace Dobell은 1861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바가 있으며 그후 100년이 가깝도록 근대의학은 질병의 예방보다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 원인과 발병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방법과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다행히 오늘날과 같은 높은 수준의 현대의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아직도 많은 후진국들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의 의식주 문제와 최소한의 의료시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경제학적 여건이 호전되고 의료시혜가 확대

되어가는 중진국 내지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사회경제 발전이 가져온 또 다른 질병 내지 공해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허약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자하는 새로운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병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보다 더 건전한 국가를 건설하고, 보다 더 높은 국가 생산능력을 성취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도록 하는 것이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정의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것을 건강이라고 할것 같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도 얼마든지 질병의 전구단계일수가 있다. 숨은 병적상태에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에도 그 범위가 넓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바늘과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다 높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에

건강검진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

송곳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병적 상태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점차 발전되어 가는 것임을 상기할때 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옛부터 우리 인류가 무병장수하기를 희망하여 온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당연한 욕망이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와같은 인식에서 1948년(Paris)의 세계인권선언중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사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다시 1987년 9월에 알마타에서 “서기 2,000년까지 전세계 인류에게 건강을 달성하자”고 선언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모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는 숨은 병적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미리 예방하고 국민에게 좀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대적 예방의학이 국민개보험과 병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질병에 걸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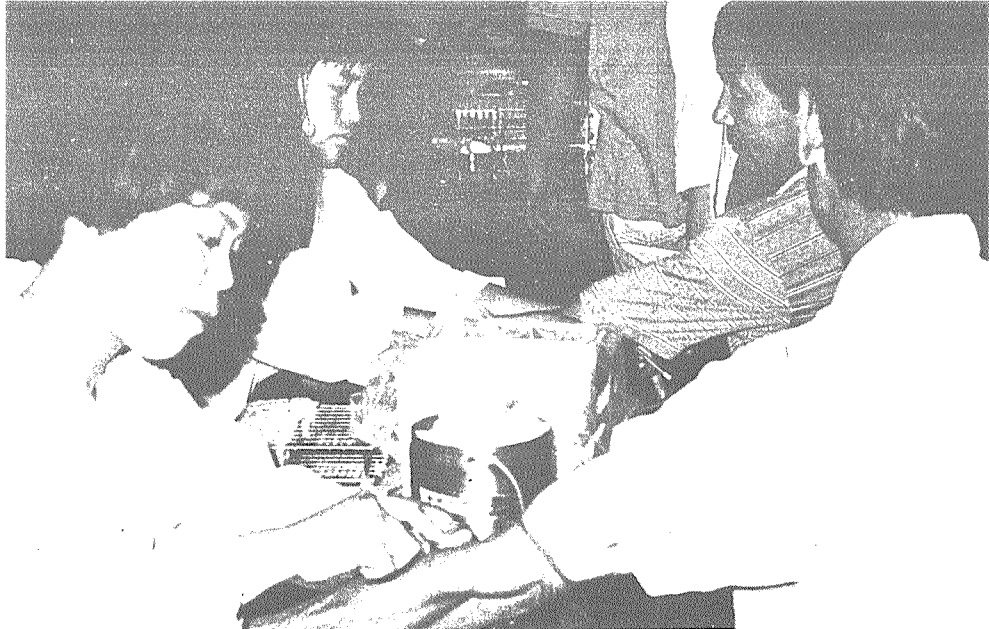
에 치료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상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전체의 건강을 보다 높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 건강검진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출생 전후의 유전질환 또는 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 학동기의 건강검진, 당뇨병, 고혈압을 위시한 성인병검진, 부인암 조기진단,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간염검사 등등 많은 예를 들수 있다.

○ 유전성 질환에 대한 검진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선천성으로 염색체 이상인자를 보유하는 태아를 조기발견하여 선택적인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한다. 검사는 양수를 채취하여 염색체 분석을 한다.

○ 출생후의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예를 들어 정신박약, 지능장애, 경련, 적색모발 등을 나타내는 “헤닐케톤요증”은 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헤닐아라닌을 제거한 우유를 줌으로써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다. “가스리(Guthrie) 검사법”으로 많은 종류의 대사이상 질환을 비교적 쉽게 선별할 수 있으며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 학동기의 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기생충 검진을 하여 왔으나 학동기가 성장발육이 빠른 시기이고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종류의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이다. 빈혈검사, 간염검사, 신장병, 당뇨병 및 심장병 검진등을 들 수 있다.

○ 성인병검진은 건강상태 전반을 선별하는 건강 검진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암등 소위 성인병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혈청단백과 콜레스테롤, 혈당, 혈색소측정, 간염검사, 매독검사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영양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를 위시하여 광범위한 검진을 하고 있으며 후자는 의사의 문진결과에 따라 해

당되는 특종검사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일차 검진항목을 포괄적으로 검사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재차 정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들 검사항목의 대부분은 요와 혈액 검체를 가지고 시행하는 임상병리학적 검사와 엑스선검사, 심전도, 혈압측정등을 포함한다.

○ 부인암 조기진단은 주로 세포학적 검사로 시행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어떤 나라에서는 진행된 부인 자궁암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조기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간염은 우리나라를 간염왕국이라고 할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전체국민의 7~10%가 B형간염 항원 양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성활동성 간염, 간경화증, 간암등의 높은 발생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중요한 검진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서울의대 임상병리학 교수〉